

최근 발굴된 경주 원지유적을 통해 살펴본 신라정원의 지당

조원범* · 임효선* · 홍광표**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당은 조경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수경요소로 취급되어 왔다. 특히 지당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게 되고, 주변 환경과의 경관적 맥락성을 가지고 조성된다는 이유 때문에 중요한 시각적 대상이 되어왔다(홍광표, 2009a: 158). 지금까지 발표된 전통조경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지당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으나, 그 대부분은 조선시대에 조성된 지당에 대한 것이고 신라시대의 정원에 조성된 지당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은데, 그것은 문헌기록의 부족이나 남아 있는 유적이 극히 적은 탓이라고 생각된다.

다행히 최근에 신라시대에 조성된 경주의 용강동 원지와 구황동 원지가 발굴되어 신라시대에 조성된 정원의 지당에 대한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용강동 원지유적은 1998년 9월부터 1999년 4월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발굴결과 왕경 최북단에 위치한다는 입지적 특징뿐만 아니라, 원지의 구조나 형식 그리고 기능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13). 또한, 구황동 원지유적은 1999년 5월부터 2004년 3월까지 5년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천의 범람에 의하여 유실된 동북쪽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지 전반에 걸쳐 원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유구가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33).

두 정원유적의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신라시대에 조성된 지당은 안압지와 같이 굴곡진 호안으로 만들어졌으며, 지중에 섬을 두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형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 발굴된 용강동 원지와 구황동 원지유적 발굴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안압지 등 신라시대에 조성된 지당과 비교 고찰하여 신라정원의 지당에 대한 형식적 특징을 구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신라시대에 조성된 정원의 지당이라는 특수 성격을 지닌 관계로 발굴조사보고서에 실린 조사내용

과 사진 그리고 도면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장답사를 통해 보고서에 실린 내용 가운데에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용강동 원지유적과 구황동 원지유적에서 조사된 지당의 형태, 섬, 호안과 바닥처리, 입수구와 출수구, 조경석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신라시대에 조성된 안압지와 불국사 구품연지 등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신라시대에 조성된 정원의 지당에 대한 형식적 특징을 구명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용강동 원지의 형식

1) 지당의 형태

용강동 원지는 굴곡진 호안으로 조성된 곡지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동쪽 호안이 38.6m, 서쪽 호안이 65m, 남쪽 호안이 33m로 되어 있다.

2) 섬

중도는 발굴이 이루어진 지역의 거의 중심부에서 발견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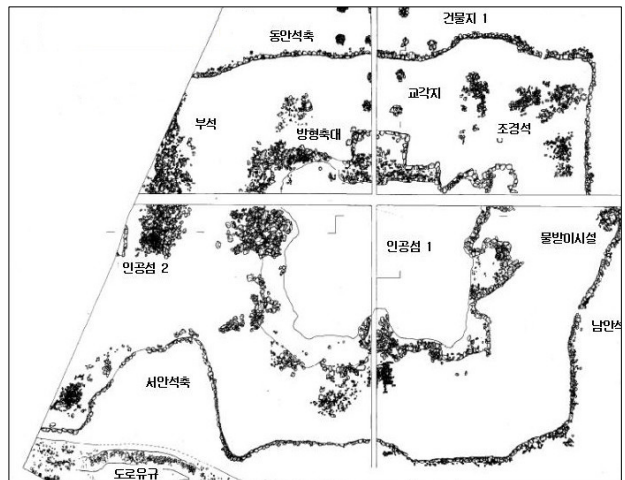


그림 1. 용강동 원지

으며, 북쪽 조사경계지역에서 또 다른 섬의 일부분이 드러남으로써 용강동 정원유적에서는 2개의 인공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도의 평면적인 형태는 원지와 같이 굴곡이 심한 호안과 돌출부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자연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경관에 변화를 주는 부정형의 평면형태를 보이고 있다.

용강동 원지에서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요소로는 교각지로 추정되는 유구이다. 이 교각지는 건물지 정면에서 인공섬의 동편 방형 축대와 연결되는 것으로 건물지와 중도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교량이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 용강동 원지에서 발굴된 교각은 삼국시대 원지에서는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3) 호안과 바다

호안석축의 평면형태는 네모꼴에 가까우며, 동쪽 호안이 직선 형태를 하고 있는데 비하여 서쪽 호안은 완만한 곡선을 이룬 형태이다. 또한 북쪽으로 치우쳐 비교적 큰 규모의 반도형 돌출부가 있는데, 이는 중도의 형태를 따라 원지의 호안을 조성한 듯한 느낌의 조형성을 보여준다. 호안석축의 구조를 보면 하단부에 비교적 크기가 큰 하천석의 자연석이나 인공을 가미한 할석 등의 석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단부에는 작은 할석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지의 호안석축에 있어서는 경관보다는 물리적인 구조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백지성과 하진호, 2002: 42).

연못바닥은 모래와 자갈이 혼합된 기반층 위에 전면적으로 갈색점토를 약 20cm 두께로 다지고 정지하여 물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바닥은 남쪽에서 서쪽으로 서서히 낮아지게 하여 동쪽에서 들어온 물이 서쪽으로 흘러가도록 하였다.

4) 입수구와 출수구

연못에 물을 공급하는 입수구는 동남쪽 가장자리 바깥에 위치하며, 남쪽 호안에는 물받이시설을 두었는데 출수구는 아마도 발굴되지 않은 북쪽 호안과 서북쪽 호안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5) 조경석

원지바닥에는 경석이 무리지어 깔려 군집을 이루고 있다. 이 경석군은 주로 북쪽과 동쪽 그리고 서쪽의 원지 바닥에서 나타난다. 원지내의 경석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원지의 바닥에 10cm 미만의 천석과 할석을 깔고 그 위에 천석을 올려놓아 조경석으로 활용한 점이다. 또한 조경석을 세우지 않고 누워서 배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2. 구황동 원지의 형식

1) 지당의 형태

지당은 남북 최대길이 46.3m, 동서 최대너비 26.1m 규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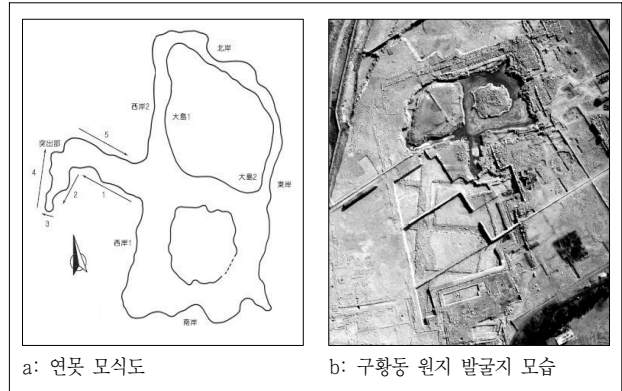


그림 2. 구황동 원지
 범례: a: 국립경주 문화재 연구소, 2008 : 82

곡지로서 대체적인 평면형태는 동북우가 말각된 장방형에 가깝다. 이 지당은 서안 중간부분에서 서쪽으로 '厂'자형의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동서 길이 16.5m, 남북 너비 6.0m이다.

담수가 이루어졌던 호안석축 내부의 면적은 1,049m²(약 317평)로 측정되었는데, 이것은 안압지의 약 1/1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 섬

연못 내부에는 대·소 2개의 인공섬이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섬의 축조 방식은 연못을 굴착한 후 바닥면 위를 다시 성토하여 조성한 소도와 하상퇴적층 지반을 두고 호안석축 선형을 따라 일정한 너비의 도랑 모양으로 굴착하여 조성한 대도로 구분된다. 이는 대도가 소도처럼 항상 섬으로 있었다기보다는 물이 적을 때는 소도 하나만 섬으로 보이고, 물이 많을 때는 대도 주변까지 물이 차올라 섬이 2개가 되는 의도적인 수경처리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수위 조절의 목적으로 조성한 수로가 대도처럼 보이게 된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치 않다.

3) 호안과 바다

호안석축은 부정형 폐곡선 형태로 펼쳐진 연못 가장자리를 따라 축조되어 있으며, 전체 길이는 돌출부를 포함하여 모두 192m에 달한다. 호안석축의 전체적인 평면은 동안과 서안은 직선에 가까운 곡선 형태이며, 남안과 북안은 돌출과 만입이 반복되면서 굴곡이 심한 곡선 형태이다.

연못의 바닥은 고저차에 의하여 상하 2개 층위로 대별된다. 낮은 바닥은 소도 주위를 따라서 서편이 길고 동편이 짧은 평면 형태를 띠고 움푹 파여 있으며, 높은 바닥은 대도 주위를 비롯하여 서쪽 돌출부에 형성되어 있다. 두 바닥의 고저차는 일정치 않으나 대개 60cm 안팎의 차이를 보이며, 바닥의 처리상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4) 입수구와 출수구

입수구는 원지 남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못 동쪽 담장 남단부에서 이어져 입수로는 서쪽으로 진행하다가 방형의 석조와 연결되며, 방형의 석조에서 다시 입구와 연결되는 수로가 이어진다. 방형 석조에서 원지의 남안과 연결되는 입수로 경계에는 돌을 세웠는데, 방형 석조는 연못에 들어가는 물을 정화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배수구는 서안의 돌출부로 추정하고 있다. 서안 돌출부의 남단과 8m 서쪽에 있는 집수정 사이에는 주변보다 큰 돌을 채워 넣은 암거가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 암거를 통해 집수정에 모인 물이 소형 배수로를 통해 배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원지 서측의 광장부지에서 직각으로 여러 번 꺾인 'ㄷ'자형 수로는 다른 유적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시설로 향후 이것에 대한 용도와 처리방식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5) 조경석

조경석은 소도를 포함한 지당 남반부, 즉 축대 상층부에서 그 운치를 조망할 수 있는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노출되었다. 잔존하는 조경석의 배치상태로 보아서는 밀도 및 형식에 관한 정형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형조건에 순응하여 조성한 원지는 뛰어난 조형성과 예술성을 보여준다. 축대 상층의 누정에서 연못을 조망할 때 가깝게 보이는 소도 주위를 비롯한 남쪽 부분에는 대형의 호안석축석을 사용함과 동시에 다량의 조경석을 배치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조망권에 잘 들어오지 않는 대도 주위의 북쪽 호안석축에는 소형 천석을 사용하여 질박하게 축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망시의 미적 감흥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조경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고찰

1) 지당의 형태

용강동 원지와 구황동 원지 두 곳 모두 지당의 형태가 곡선형 호안을 가진 곡지 형태로 조영되어 있음을 발굴조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 복원이 이루어진 안압지의 동안과 북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불국사 구품연지 역시 발굴조사보고서에는 호안의 형태가 타원형이라고 하였으나, 석축의 형태를 살펴보면 곡지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용강동 원지와 구황동 원지에서 확인된 곡지 형태가 신라시대의 지당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형식인 것으로 보인다(홍광표, 2009 가을: 159-161).

이렇게 신라시대에 조성된 지당의 형태가 곡지라는 사실은 백제시대의 궁남지, 고구려시대의 진주지가 곡지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일본정원의 곡지형 원지와와의 상관성도 확인된다(홍광표, 2009a: 159-161). 이것을 통해서 고대 정원

의 원지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섬

발굴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용강동 원지와 구황동 원지는 공통적으로 못 안에 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안압지의 경우 3개의 섬이 조성되어 있고 고구려시대에 조성된 진주지의 경우에도 4개의 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정원의 지당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형식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도형 지당 중에는 산책을 목적으로 육지와 중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 있다. 용강동 원지의 경우 이러한 교각지가 발견되었으며, 우리나라 삼국시대 원지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3) 호안과 바닥

용강동 원지와 구황동 원지는 공통적으로 호안에 석축을 하여 경계를 분명히 하였으며,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였음을 볼 수 있다.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용강동 원지와 구황동 원지를 비롯한 비교해 본 결과, 용강동 원지의 호안은 직선·곡선이 혼합된 형태이며 하단에는 비교적 크기가 큰 자연석이나 인공을 가미한 활석 등의 석재를 사용하여 조성하였다. 반면에 구황동 원지의 호안석축은 동안과 서안은 직선에 가까운 곡선 형태이며, 남안과 북안은 돌출과 만입이 반복되면서 굴곡이 심한 곡선 형태를 보였다. 그리고 석축기법은 대부분 깎은 돌을 혼용하여 허튼층쌓기 방법으로 축조하였으나, 1차 시기의 못은 굴곡이 완만한 바른층 쌓기 방식의 호안석축으로 되어 있어 시기에 따라서 석축기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원지를 비교하여 나타나는 공통점으로는 원지 호안에서 일정부분 직선형이거나 직선에 가까운 호안이 나타난다는 점이며, 직선과 곡선이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공석과 자연석을 모두 사용하여 호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 동일한 점이라고 하겠다.

한편, 안압지의 호안에서도 곡선과 직선이 다양한 변화를 가지며 조화를 이루고 있고, 호안석축의 재료는 자연석과 가공석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고찰할 때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룬 호안의 조성은 신라시대 지당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형식으로 보인다.

연못의 바닥처리는 조영 목적에 따라 처리방식을 다르게 하였는데, 용강동 원지와 안압지의 경우에는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바닥을 처리한 기법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용강동 원지의 바닥은 방수처리와 함께 그 위에 부분적으로 20cm 미만의 활석과 천석을 드문드문 깔았다. 이러한 부석시설을 바닥에 배치한 까닭은 연못 내부에 유입되는 물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압지의 경우에도 연못바닥에 진흙으로 방수처리를 하고, 강회를 다지고 바닷가에

서 주위 온 검정색 조약돌을 깔아 흙탕물이 일지 않도록 함은 물론 연이 아무 곳에서나 자라지 않도록 하였다.

4) 입수구와 출수구

용강동 원지와 구황동 원지는 규모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물을 멀리서 끌어와 원지를 조성한 점과 남쪽 호안에 입수구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용강동 원지에서는 물받이 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물에 의한 연못바닥의 패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황동 원지는 방형 석조를 통해 물을 정화시켜 원지로 흘러 보내는 원리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안압지의 입수구에서도 6단계 입수시설을 통하여 과학적이며 경관적으로 뛰어난 입수장치를 하였다.

한편, 일본의 평성궁 동원원지에서도 안압지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입수구가 있지만 안압지에 비해 조잡한 편이며 안압지의 입수시설이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이 확인된다(홍광표, 2009 가을, 55: p150-153). 이것을 보면 신라시대에 조성된 지당의 입수기법이 일본에 영향을 준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조경석

용강동 원지와 구황동 원지 모두 조경석을 이용하여 경관을 연출한 것이 특징적인 것으로 보인다. 용강동 원지의 경우 조경석 사용은 연못 동북쪽에서 연못바닥에 천석과 활석을 깔고 그 위에 청석을 놓아 조경석으로 사용하였고, 구황동 원지에서는 조경석을 청색과 붉은색으로 그 생김새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또한 대부분 연못 내부 및 주변 호안석축 일대에서 사용되었으며, 출토된 조경석들의 크기가 대체로 1m를 넘지 않았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조경석의 크기가 대체로 2m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이는 주변 유구와의 비례 관계를 고려하여 미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08: 212).

I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발굴된 경주의 용강동원지 유적과 구황동 원지유적을 통해 신라정원에 조성된 지당이 어떠한 형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당의 형태는 공통적으로 곡지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부분적으로 직선호안이 나타나고 있으며, 곡선과 직선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 역시 형식적 특징으로 보인다.

둘째, 지당은 공통적으로 못 안에 섬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섬의 개수는 동일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었다. 못 안에 섬을 두는 이러한 형식은 조선시대의 원도방지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당은 공통적으로 호안에 석축을 하여 경계를 분명히 하였으며,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바닥은 연못 내부에 유입되는 물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방수처리를 하고 검정색 조약돌을 깔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못에 물을 대는 입수구는 시각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으며, 여러 단계의 입수장치를 하여 수질을 정화하고 경관적으로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출수구는 입수구에 비해서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신라시대에 조성된 지당은 공통적으로 호안 주변에 조경석을 배치하여 경관효과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지당 형태의 특징은 한국 고대정원의 양식사 정립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한·중·일 삼국의 정원에 대한 비교연구가 진행된다면 삼국간의 정원양식의 교류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신라시대 정원의 지당 형식 비교

지명	지당 형태	섬	입수구와 출수구	호안	바닥처리
안압지	곡지	대중소 3도	6단계의 입수장치가 있으며, 입수지점에서 2단 폭포로 입수됨	곡선과 직선이 다양한 변화를 가지면 조화를 이룸	못바닥은 진흙다짐을 하고 강회 다짐한 다음 모래를 깔고 검정색의 바다가 조약돌을 깔았음
용강동 원지	곡지	대소 2도	남쪽 호안의 물받이 시설과 수로가 발견됨	직선·곡선이 혼합된 형태의 호안 하단에는 비교적 크기가 큰 자연석이나 인공을 가미한 활석 등의 석재를 사용	모래와 자갈이 혼합되어 토적된 기반층 위에 갈색점토를 깔았으며, 바닥을 고르게 정리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평탄한 바닥면을 조성함
구황동 원지	곡지	2도가 있으며, 섬의 축조방식에 차이가 있음	르자형 배수시설 등이 있음	동안과 서안은 직선에 가까운 곡선 형태임 남안과 북안은 돌출과 만입이 반복되면서 굴곡이 심한 곡선형태임	두 섬의 다른 축조방식으로 인해 두 섬 주변의 바닥의 고저차와 처리상태에도 차이가 있음
불국사 구품 연지	곡지에 가까운 타원형지			연못둘레는 거대한 암석으로 돌아가며 쌓음	

인용문헌

1. 고경희(1989) 안압지, 대원사.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시(2008) 경주 구황동 황룡사지전시관 건립부지내 유적-구황동 원지 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시.
3.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부(1978) 안압지 발굴조사 보고서.
4. 박경자(2002) 고대 한·중·일 원지의 비교 연구 -최근 발굴된 원지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0(4): 1-8.
5. 백지성, 하진호(2002) 경주시 용강동 정원유적의 원지구성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3): 37-53.
6. 영남문화재연구원(2001) 용강동원지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서 제30책, p.13.
7. 이상필, 강철현, 이재근(2006) 한국 전통 원지 조영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3): 51-66.
8. 정동오(1978) 한국정원의 지당 형태 및 구성에 대하여. 한국조경학회지 6(1): 1-16.
9. 정재훈(2005) 한국의 전통조경. 도서출판 조경.
10. 주남철(2009) 한국의 정원, 고려대학교 출판부.
11. 홍광표(2009a) 한국의 전통 수경관 2. 조경생태시공 통권 55호, pp. 159-161.
12. 홍광표(2009b) 한국의 전통 수경관 3. 조경생태시공 통권 56호, pp. 150-153.